

1999학년도
졸업논문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비교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연구과 조직신학전공

강 상 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비교연구

指導 김 성 봉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년 12월 23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연구과 조직신학전공

강 상 대

강상대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년 12월

謝 辭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
하여 주신 김성봉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9년 12월 23일

제 출 자

차 례

제1장 서론	1
제2장 도르트회의 이전의 제논쟁들	2
1.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2
2. 알미니안주의의 전위인 반 펠라기우스주의	3
3. 칼빈주의	3
제3장 5대교리의 형성과정	5
1. 알미니안파의 항의	5
2. 알미니안주의의 5대교리	6
3. 알미니안주의의 철학적 근거	6
4. 도르트 회의	7
제4장 칼빈주의 5대교리와 성경적 근거	9
1.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	9
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10
3.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13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16
5. 성도의 궁극구원(Perserance of the Saints)	19
제5장 알미니안주의의 5대교리와 칼빈주의 5대교리의 비교	21
제6장 결론	26
참고문헌	28

제1장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신학사상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체계를 재술하여 그 교의가 명백한 성경의 교훈이요 또한 이성의 교훈인것을 밝혀 제시하는데 있다.

이 5대 교리에 대한 학술적 명칭은 칼빈주의 다섯가지 특질(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칼빈주의”라는 명칭은 처음엔 반대자들 편에서 사용한 선전방책이었다. 그러나 개혁신앙 옹호자들은 그 용어가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교리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¹⁾ 칼빈주의 체계는 이 다섯가지의 명확한 교리를 고조한다. 이 5대 교리는 칼빈주의의 상층 건축을 쌓고 있는 주요지주(主要支柱)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교리를 성서적 근거에서 또는 이성적 논설로서 고찰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소위 이 ‘칼빈주의 다섯가지 특질’은 역사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의 다섯가지 특질’의 정반대면이다.²⁾ 그 형성과정에 있었던 알미니안주의와의 대립과 내용도 비교·분석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 다섯가지 특질을 칼빈주의 전체계라고 속단하여 양자를 동일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칼빈주의 체계는 이 5대 교리를 본질적 요소로 하지마는 사실상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한 것이다.

1) 라보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216.

2) 위의 책, p.218.

제2장 도르트회의 이전의 제논쟁들

1.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존 칼빈(Jhon calvin)이나 제임스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가 그들의 이름을 가진 두 체계를 이루는 기본 사상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각 체계의 기본 원리들을 이 두사람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전의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면 칼빈의 입장의 기본교리들은 5세기에 펠라기우스에 대항하여 어거스틴이 활발하게 옹호한 것이었다. 킨닝함(Cunningham)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칼빈의 칼빈주의 속에는 그 본질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주의 속에도 새로운 것이 없다. 알미니우스의 교리들은 클레멘스 알렉산드니우스(Clemeus Alexardnius)시대만큼이나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3세기와 4세기의 많은 교부들에 의하여 주장되어진 것 같으며 세속 철학의 퇴폐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유포되어졌다.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알미니우스보다 더 많이 건전한 교리로부터 탈선했지만 알미니우스 만큼이나 칼빈주의에 대해 단호히 반대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벌인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자유의지와 원죄에 관한 것이었다.³⁾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인류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고통받은 그 나쁜 결과는 그가 인류에게 보여준 나쁜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모든 어린아이는 아담이 타락전에 가졌던 것과 꼭 같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다.⁴⁾ 그의 주요 원리는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 내부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펠라기우스의 이같은 입장은 인간자유의지(人間自由意志)의 중요성에 대한 극단적 견해를 가져온 것이다.⁵⁾

3)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9, p.151.

4) 유스토 L. 곤잘레스,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8, p.340.

5) 요점, 데일, 손택구 역, 웨슬레신학과 칼빈신학의 비교, 서울: 보이스사, 1998, p.25.

반면에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인류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됨이 없이 그들의 자의지(自意志)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는 처음에는 복음의 전반적 부르심에 응하는 의지의 자유를 가르쳤었다. 그러나 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말려든 후에는 그의 견해를 수정하였다.⁶⁾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자유의지와 행위의 역할이 있다. 그것은 은혜가 의지를 치료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⁷⁾

2. 알미니안주의의 전위인 반(半)펠라기우스주의

어거스틴은 각별한 노력과 변증으로 펠라기우스주의를 붕괴하였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권위가 전적으로 수긍되지 못한 데서 파생된 문제로 반(半)펠라기우스주의가 나타났다. 이는 은총의 선행을 부정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점을 부인하며, 자연 인간을 선행의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 보려하지 않고 인간의 자발적인 협조로 은총역사의 조건으로 삼고 은총을 ‘어떤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점등이다. 이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여 그 두 주의로부터 그 요소들을 취했다. 케시안(Cassian)이 이 중도적 노선의 창시자이다.

3. 칼빈주의

16세기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은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 모두 배격했다. 어거스틴처럼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부패,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고수했다.

팩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의 초기 시대의 모든 지도적 신교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꼭 같은 입장을 취했다. 다른 면에 있어서 그들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무력과 은총의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였다.” 그것은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 쾰링글리(Zwingli), 멜랑톤(Melancton), 벌링거(Bullinger), 부서(Bucer)등 모든 개혁

6) 요킵, 데일, 손택구 역, 웨슬레신학과 칼빈신학의 비교, 서울: 보이스사, 1998, p.25.

7) G. W. Bromily, 193-194.

시대의 유명한 지도자들에 의해 가르쳐졌다. 몇몇 다른 점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 예정교리에 관해서는 의견을 일치했고 또 그것을 강조하여 가르쳤다. 개혁 교회의 입장에 선 칼빈(John Calvin)과 칼빈주의자들은 죄의 결과,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여 죄의 권세에 노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에 있다고 한다.⁸⁾

8) 라보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P.216-217.

제3장 5대 교리의 형성과정

칼빈주의라고 역사에 알려진 신학체계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정치 및 제도와 관련되어 왔다. 예를 들면 영국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적 교리들이 한동안 감독주의와 결부되어 있었으며, 아일랜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 체계는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17세기 초반기동안 화란에서의 신학논쟁을 전반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1. 알미니안파의 항의

교수이며 목회자였던 제임스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학 교육을 받았다. 쿠른헤르트(Drick Koornhert)가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하자 그에 대항하는 이론 반박을 부탁 받았다. 이를 위하여 쿠른헤르트의 저술을 연구한 알미니우스는 쿠른헤르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03년 네덜란드 라이든(Layden)대학의 교수가 되자 그의 의견은 공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예정론을 신봉한 그의 동료 고마루스(Francis Gomarus)와 논쟁하면서 스스로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였던 알미니우스의 사상은 칼빈주의의 반대 입장으로 인식되었다.⁹⁾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 일년째인 1610년에 그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 5개조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 - 이 다섯교리를 리만 스트런스(Reman-Strance 즉 항의)형식으로 화란 정부에 제출했다. 알미니안들은 벨적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화란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대한 공식표현)을 리만스트런스에 함유된 교리적 견해에 일치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무능, 무조건적 선택, 혹은 예정, 특별구원,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요리문답과 고백서 속에 지지된 교리들을 반대했다. 그들이 화란교회의 공식표준서들이 수정되기를 얼마나 원했다는 것은 이 문제들과 관계된 것이었다.

9) Justo L.Gonzalez,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은성, 1988, p.27p.

10) 존 칼빈, 김종흠 등 역, 기독교강요 상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Vol.Ⅱ-2-1.

2. 알미니안주의의 5대교리

1610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반대 성명(Remonstrance)을 발표하였다.¹¹⁾ 랄저 니콜은 리만 스트런스에 포함된 5개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가) 하나님은 예지된 믿음이나 불신앙을 근거하여 선택 또는 견책하신다.
(나) 비록 신자들만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각 개개인을 위해 죽으셨다. (다) 인간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이나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라) 이 은총은 저지되어질 수 있다.
(마) 참으로 중생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더 연구를 요하는 점이다. 마지막 조항은 참 중생한 신자가 믿음을 잃고 또 그런 후 그의 구원까지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 후에 변경되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점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중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되며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알미니안주의의 철학적 근거

팩크(J.I. Packer)는 리만 스트런스 속에 형성된 사상체계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신학(알미니안주의로 역사에 알려진)은 두개의 철학적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첫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의 책임과도 양립할 수 없다. 둘째, 능력은 권리를 제한한다.

이 원칙들로부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두개의 추론을 했다.

첫째, 성경은 믿음을 자유로우면서도 책임 있는 행위로 간주하므로 믿음은 하나님에게 기인될 수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둘째, 성경은 믿음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편에 서서 의무로 간주하므로 믿는 능력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 (1)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코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으므로 복음이 자기 앞에 놓여질 때 그것을 구원이 되는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11) James Arminius, The works of James Arminius (The London Edition), Vol.2, trans. James Nichol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7op. 이 후로 Arminians는 Remonstrants(반대자)로 불리우기도 한다.

- (2)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으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 (3)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정은 그들이 저절로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촉진된다.
- (4)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믿음의 은총이 없는)에게 그 은총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만하면 그들을 위한 구원의 가능성을 창조한 것뿐이다.
- (5)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은총의 상태에 자신을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신자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타락하여 유기된다. 이처럼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한다. 또 구원하는 믿음은 인간 자신의 일로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알미니안주의는 결국 사람의 의지 회개와 신앙을 중생 앞에 놓아, 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하고, 인간의 신앙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인간이 자력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을 부정한다(참조, 엠 2:8)¹²⁾

4. 도르트 회의

알미니우스는 1609년에 사망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1610년에 무조건적 예정론을 주장하는 정통과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알미니우스파 항변서). 이에 대해 반 항변과 성명서는 정통과의 입장을 재천명하였고 따라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1618년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성경의 빛으로 조명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한 도시인 도르트(Drot)에서 개최된 교회회의이다. 이 교회회의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교리들 중 하나인 ‘도르트 종규(Canons of Drot)’가 작성되었다. 네덜란드 의회에 의해 소집된 이 교회회의는 각 지방 교회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도 참석시켰다. 네덜란드의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독일의 칼빈주의교회의 대표들도 고문으로 참석했다. 프랑스

12) 김길성, “우리 시대를 위한 개혁주의 구원론”, 개혁주의 성경연구소(RIBRT I),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p.75

의 칼빈주의자들도 초청을 받았으나 루이 13세가 참석을 금지하였다. 또 고문으로 5명의 신학교수와 18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정식 대표는 56명이었고 이 교회회의는 항변파의 견해가 칼빈주의자의 신앙고백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도르트 종규는 항변파를 반대하는 정통 입장을 요약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확인했다. 이 칼빈주의 신앙 종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규범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항변파 목사들은 교단에서 축출 당했으며 항변파 지도자들은 평화의 고난자라는 죄목으로 네덜란드 의회에 의해 국외로 추방되었다. 이들은 비록 도르트 회의에서는 정죄 되었으나¹³⁾, 그후 영국으로 건너와 영국 성공회, 특히 웨슬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13) 이 회의의 대부분 참석자들이 칼빈주의자들 이었기에 정죄되었다. 김홍기, 83.

제4장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성경적 근거

1.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

칼빈은 어거스틴의 용어를 빌려,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말하였다. 자연적 은사¹⁴⁾는 죄 때문에 부패¹⁵⁾되었고 초자연적 은사¹⁶⁾는 인간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고 중생의 은총을 통하여 그것들을 회복할 때까지는 영혼의 축복된 생활에 속하는 모든 자질¹⁷⁾이 소멸되었다고 말한다.¹⁸⁾ 웨스터민스터신경에서와 바울, 어거스틴, 칼빈 등은 전 인류는 아담에게서 범죄하였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는 핑계할 수 없다(롬 2:12)는 사실을 그들의 출발점으로 한다. 바울은 여러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할 수 없는 자리에 빠졌던 자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이 교리는 모든 인간이 다같이 악하다던가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악하고, 어떤 사람은 전연 덕을 상실하였다던가 혹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인간의 정신이 불활동적이라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교리가 제시하는 진수는 타락 이래의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있었고 오류된 원리에 의하여 살고 전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을 얻기에 상당한 아무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타락이래 모든 선에 대하여 부적당, 무능력 또는 반대하는 자가 되어 다만 악에만 경주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여 고정된 편벽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악에만 향하게 되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버림받은 자요 또한 자원하여서 된 죄인이다. 타락된 인간이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생득적 재능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데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유를 가

14) 자연적 은사를 인간의 선과 악을 분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을 말한다. 칼빈은 이성은 완전히 말소될 수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부패되었다고 보았다.

15) 자연적 은사의 부패는 정신의 건전함과 마음의 정직이 사라짐을 말한다.

16) 천상생활과 영생복락을 얻는 충분한 의뿐만 아니라 신앙의 빛을 말한다.

17) 이것들 중에는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결과 의를 위한 열심 등이 있다.

18) [기독교 강요], II.2.12.

지지 못하였고 다만 악의 의미에서 본질적 자유의지는 아닌 것이다. 죄를 사랑하면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랴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변뇌하는 의지의 무능력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오기를 의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의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전연 구원을 바라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된 성질은 하나님의 것에 관한 가장 완고한 맹목, 지둔, 적대를 산출하였다. 그의 의지는 선과 악에 대한 혼미한 오성의 지배아래 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연 맹목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타락된 천사나 혹은 악한 귀신이 하는 것처럼 다만 선 대신 악을 좋아하고 그것을 취택한다. 타락된 인간은 한결같이 그 행동에 있어서 그들은 결코 강제되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 죄를 범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타락된 인간은 영적 식별력이 없는 것이다.

- 성경의 근거 -

고전 2:14	창 2:17	롬 5:12	고후 1:9
엡 2:1-3	엡 2:12	렘 13:23	시 51:5
요 3:3	롬 3:10-12	욥 14:4	고전 1:18
행 13:41	잠 30:12	요 5:21	요 6:33
요 8:19	마 11:25	고후 5:17	요 14:16
요 3:19			

2.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개혁교회의 신조는 사람이 나기 전에 벌써 영생할 자와 멸망할 자를 구별하여 택정하는 영원적 제정이 있음을 주장한다. 무조건적 선택은 1689년의 침례교 신앙고백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영국 국교회의 39개조 및 주요 고백서들에서 거의 동일한 용어로 진술되어 있다.¹⁹⁾ 인생은 타락된 결과로 유죄하고 부패되었으며 저들의 동기는 사극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이 죄벌에서 구원되고 행복과 성결의 자리로 인도된다.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멸망상태 그대로 방치되고마는 것으로써 그들의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결코 부당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웨스터민스터신경은 이 교리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제정에 의하여 또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는

19) 라보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221.

영생을 얻게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에게 영광을 주신 것 같이 그는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대로 그 영광을 받게 할 방법까지 예정하셨다.” 우리가 이 선택 도리를 명백히 깨닫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 교리에 대한 견해가 우리의 신관, 인생관, 우주관, 구속관 등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참으로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구별없이 아무에게나 구원의 희망을 주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는 거절하는 구원을 저 사람에게는 주신다고 하는 대비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 영원 선택의 교리를 잘 요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연민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 원리에 대한 무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참된 겸비를 감살한다.”²⁰⁾

칼빈은 이 교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히 뒤섞인 의아를 일으키는 일이 있음을 시인하여 “그들은 전 인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신교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들 자신이 느끼고 또한 본 모든 영적 현상의 실제적 경험에 일관하여 이 선택 교리를 적용하였다. 하나님의 목적 혹은 예정만이 선과 악, 성도와 죄인의 구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의 전적 무능력 혹은 원죄의 교리가 용인된다면 무조건 선택 교리는 아무리 하여도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구원의 은혜적 특성은 개인의 선택을 통하여 가장 명료하게 표시된다. 이은득구(以恩得救)를 주장하면서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자가당착의 입장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지배자, 심판주로서 그 의향대로 죄인의 세계를 처치할 자유를 가지셨다. 그가 어떤 자는 용서하시고 어떤 자는 정죄하셔도 그의 공의에 위반됨이 없으며, 혹자는 구원하고 혹자는 내버려도 그의 공의에 위반됨이 없다 하나님은 자의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는가? 왜 혹자들은 남과 다르게 득구하는가 하는데 대한 이유는 만사를 자의대로 명정하시는 이의 기쁘신 뜻에 전재하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사실에 있다. 그리고 신앙과 선행은 선택의 근거가 아니고 그 결과 또는 증거이다.

20) Institutes. Book III. ch XXI Sec. I.

- 성경적 근거 -

엡 1:4-5, 롬 8:29-30에서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는 구속의 황금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워필드 (Warfield)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다섯개의 금환은 상호 결합하여 한개의 완전한 열쇠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하여 주마고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여 반드시 종말에 영광을 받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선택 행위는 필경 이 모든 것을 이룬다. 즉 하나님은 예지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²¹⁾ 롬 9:11-13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만일 선택교리가 참되지 않다는 자가 있다면 이 성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삭을 택하심과 이스마엘을 물리쳐 버리신 일,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물리쳐 버리신 일은 그들이 나기 전에 행하신 일이었으니 만큼 그들이 선이나 악이나를 행하기 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 성구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일은 자원함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참조한다.

살후 2:13	마 24:24	마 24:31	막 13:20
살전 1:4	롬 11:7	딤후 5:21	롬 8:33
롬 11:5	딤후 11:5	딤후 2:10	딤후 1:1
벧 1:2	벧전 5:13	벧전 2:9	살전 5:9
행 13:48	요 17:9	요 6:37	요 6:65
요 13:18	요 15:16	시 105:5-6	롬 9:23

21) pamphlet. Election p.10

3.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이 세번째 교리를 5대교리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중심적 사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되기도 한다.²²⁾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으로 바치셨는가 또는 그의 죽음이 피택된 자에게만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가 다시 말하면 그의 희생이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실 것을 목적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만 구원하실 목적이었는가 함이다. 알미니안파는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목적과 의도하에서 선택된 자만을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선택된 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일반적 은혜(자연 은총)에 참여하는 자인 범위 안에서 부대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²³⁾ 본 교리의 의미는 “한정된 속죄”를 다르게 “유한한 대속”이라고 사용하는 편이 더 명료하게 될 것이다. 이 교리가 선택교리에서 생기는 것은 바로 보아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부분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심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의 구속사업이 전 인류와 관계를 가졌다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한 것과 같이 또한 같은 의미로 선택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죽을 것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모순된 말이다.

그러나 이 교리가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속죄의 가치와 능력의 한도가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속죄의 가치는 그것을 행한 인격의 존엄하심에 기인한다. 또한 그것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신인(神人) 양격으로서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수고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만 적용시킨 의미에서 한정되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속죄의 가치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족하나 선택자 만을 유효적으로 구원한다. 속죄는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의 구원에도 저 사람의 구원에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적용되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나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주관적 곤란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성화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구속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속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이 인류 전체를 한결같이 취급하여 다같이 득구함을

22) 라보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224.

23) 로레인 뵈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서울: 백합, 1972, p.177.

목표한다면 같은 구속의 계획에 들어있는 자들 중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죄는 객관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구원이 가능하지마는 실제적으로는 한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알미니안파의 이론에 의하면 속죄는 전 인류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함으로써 자력 득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속죄함을 받고도 오히려 불신앙으로 멸망되어 간다는 말인가. 그것은 병고침을 받고도 오히려 암종으로 죽어간다는 말과 같이 그 말 자체가 모순 천만이다. 워필드(Dr Warfield)박사의 말과 같이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높은 가치를 가진 속죄인가. 넓은 외정을 가진 속죄인가 이다. 이 양자는 결코 병립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보편화함은 결국 그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알미니안파도 칼빈주의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확실히 한정한다. 그러나 “한정”은 서로 내용을 달리하는 제한인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속죄의 “한계”를 한정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알미니안파의 속죄는 “능력”을 한정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죄의 양적으로 한정하나 질적으로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알미니안파는 그것을 질적으로 한정하고 양적으로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천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 놓은 짧은 다리 같고 알미니안파에게 있어서는 속죄가 하천의 중도까지 즉 건너편에 닿지 못한 다리와도 같다. 이것으로 보면 알미니안파가 칼빈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준열하고 가혹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²⁴⁾

그리스도의 사업은 율법의 완성이다. 만일 구속의 혜택이 보편 무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알미니안파의 말과 같이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받은 저주를 말소하는 희생이 될 뿐으로 율법상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의 율법이었고 또한 이것은 불변의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도히 엄한 율법의 복종을 인간에게 요구하셨다거나 혹은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다거나 혹은 어떤 필요에 따라 내셨던 율법을 폐하시거나 경감하시는 일이 있는 듯이 인상되게 하는 것과 같은 아무일도 결단코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장한다.

24) 앞의 책, p.181.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그들 자신으로던가 혹은 그들 대신된 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앞에 서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행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²⁵⁾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의도하신 자는 반드시 실제로 구원된다고 믿는다. “이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여기 “많은 사람들을 위한”은 모든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의도하였고 하면 사람들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은 어쩔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희생시킨 사랑은 모든 인간을 균등하게 대상한 일반적이며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의 선민만을 위한 특정적이며, 신비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그와 같은 큰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자비 혹은 박애로 설명하는 이론은 모두가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도 않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무질서한 전체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곧 자기 백성들, 자기의 신부, 자기의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농부는 자기의 밭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밭 가운데 가라지를 귀중히 여겨 가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는 하나님의 밭이다(마 13:38). 이 밭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자녀들을 위하심이 지 결코 악마의 자식을 위함이 아니시다. 하나님에게 똑같이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차별이 없이 구속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태양이 그 빛과 열을 무차별하게 던지는 것 같이 하시거나 나무가 그림자를 누구에게든지 주는 것 같이 하지 않으신다. 이 한정적 속죄의 증명은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논증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하시며 또한 그의 지혜는 완전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대(大)에서 소(小)를 보시며 무리에게 개체를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인지를 예지하신다. 이 사실은 복음주의적 알미니안도 시인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할 자와 멸망할 자도 예지하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칼빈주의자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중대한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전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벌써 받을만한 벌이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만류된 사실, 그뿐 아니

25) 앞의 책, p.182.

고 이 세상의 도덕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더 향상하게 됨을 믿는다.

컨닝햄(Cunningham)씨는 칼빈주의 신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정적 구속 혹은 한정적 속죄를 주장하는 자는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²⁶⁾

- 성경적 근거 -

요 8:44	요 6:70	요 10:14-15	요 15:13
요 17:6,9,10	마 3:9	마 20:28	

4.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총의 저항할 수없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에 저항할 수 있다.”²⁷⁾고 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고 한다. “무릇 영생에 이르기를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확실히 부르사 저희가 본 성품으로 사는 죄와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구원을 얻는 지위에 이르게 하시되 성령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저희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유순한 마음을 있게 하시며 저희의 심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저희를 세워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아주 자유롭게 나오느니라”²⁸⁾

“이 확실한 부름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사람의 여하한 선이 있을 주 아심이 아니니 만드시 성령을 힘입어 경성하여 다시 새롭게 됨을 얻은 후에라야 능히 부르심에 응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시마고 하신 은혜를 능히 받게 되나니라”.

소요리 문답서는 불가항력적 소명(召命)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써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환난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비취시며 우리 뜻을 새롭게

26) Historical Theology. II. p.333

27) “What Is An Arminian?”, Works, X.360.

28) Chapter X. Section 1 and 2.

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사 복음에서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능히 받게 하시나니라”²⁹⁾

칼빈주의 신학 체계는 논리적으로 완전하긴 하나 단순한 존리체계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선 순전히 성경적인 신앙 체계이다. 그런고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는 도르트 회의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작성한 사람들이 궁리해 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속에 나타난 계시인 것이다.³⁰⁾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려면 먼저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반드시 그는 중생해야 될 것이다(요 3:3).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으니 만큼 초자연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영적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함은 마치 죽은 몸이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과 같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피택된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물이다. 이 큰 재창조의 사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생의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이 선한 것을 소유한 자들로 예견된 때문에 시여하였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중생하기 전에는 선을 행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다. 인간은 그 생래(生來)의 성질 그대로는 그 철저적인 절망 상태를 결코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의 중생은 우리안에 행하여지는 어떠한 일이었지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행위는 아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생명에 이르는 돌연적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므로 우리의 의식작용이 미치지 않는, 보다 더 깊은 곳에서 되여지는 것이 분명하다. 나사로가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 그저 피동적으로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이 중생을 받는 영혼도 단순히 피동적으로 성령의 공역(工役)에 응할 뿐이다. 중생은 성격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하여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이다. 이 변화의 결과로 사람은 연구 또는 논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적 경험에 의하여 불신앙 상태에서 궁극적 신앙 상태에 옮긴다.

성경에 타락 교리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파괴된 자로 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무력을 알며 자기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다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만 된다”고 하였다. 피택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으나 복음을 들었다고

29) Question 31.

30) 라보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p.227.

믿는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비로소 듣고 또 믿게 되는 것이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의 증거가 불충분 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내적 성품이 성덕을 반역하는 까닭이다.

모즐리(Mozley)씨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의 형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었으니 누구나 이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며 회심케 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최후의 상급을 받도록 자격을 이루게 되지 않을 수 없다.”³¹⁾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권밖에 있게 할 수 있는 특성은 인간의 의지에는 없다. 사울은 그의 정열적 박해의 최고조에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 십자가 위에 강도는 그의 지상적 생명의 최후에 이르러 부름을 받았다. 바울이 안디옥에서의 전도에 의하여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 다 믿었다”(행 13:48).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저 내버려두신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셨다. 중생된 자들도 역시 고통, 질병, 의기소침 도는 죽음까지 맛본다. 그러나 그들은 견실하게 조금씩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이 실효적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터이나 이 구속이 모든 자에게라 주장하는 알미니안은 복음적이 아닐뿐이요 제한적 속죄를 취하는 복음주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은 성취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만이 성경과 경험의 사실에 일치하는 것이다.

피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 은혜와는 달리 “일반 은총”이라고 칭호되는 다소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잉여되는 성령의 일반적 감화가 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한결같이 햇빛을 쬐이시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같이 비를 내리신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택함을 받은 자보다 훨씬 풍부하게 이런 방면에 축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 은혜는 온갖 질서, 연마, 교양, 일반적 덕의 원천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 능력이 증대되고 인간의 악한 정열이 억제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나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죄의 핵심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회심을 하게 하지 못한다.³²⁾

31) The Aupustinan Doctrine predestination p.8

32) 로레인 비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서울: 백합, 1972, p.211.

고전 1:21, 행 18:10, 요 10:16, 롬 8:14, 고전 2:10-14, 6:11, 12:3, 고후 3:6, 3:17-18, 벧전 1:2, 요 1:12,13, 요 3:3-8, 딤후 3:5, 벧전 1:3, 1:23, 요한 1서 5:4, 신 30:6, 겔 36:26-27, 갈 6:15, 엡 2:10, 고후 5:17,18, 요 5:21, 엡 2:1,5, 골 2:13, 마 11:25-27, 눅 10:21, 마 13:10,11,16, 눅 8:10, 마 16:15-17, 행 5:31, 11:18, 13:48, 16:14, 18:27, 롬 1:6,7, 8:30, 9:23,24, 사 55:11, 요 3:27, 17:2, 롬 9:16, 고전 3:6,7, 4:7, 빌 2:12,13

5. 성도의 궁극 구원(Pers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의 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될 수는 없다. 이런 자는 최후까지 확실히 보존되어 영원히 득구하나니라”고 웨스터민스터신경 17장 1절에 서술된 성도의 궁극 구원의 설명이다. 이 교리도 또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칼빈주의 신학체계의 반드시 없지 못할 부분이 되어 있다. 선택과 효력있는 은혜의 교리는 논리적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자의 확실한 구원을 포함한 뜻이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 무조건으로 영생하도록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속의 은택을 그들에게 유효하게 내리시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가 될 것이다.³³⁾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도 멸망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을 그들이 아직 구원의 상태에 있을 그 때에 세상에서 불러가지 않으셨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울은 신자가 “율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또한 율법아래 있을 때 때문에 율법을 파하는 일에 대하여 정죄하는 일이 없다고 가르쳤다(롬 6:14). 우리는 은혜아래 있다고 우리의 공로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죄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롬 11:6). “율법이 폐기되면 죄는 벌써 사람을 벌에 처할 수 없는 것이다(롬 4:15, 7:8).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이다(롬 7:4).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율법 아래에 두지 않으시는 한 우리들은 멸망할 수 없을 것이다.

33) 로레인 비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서울: 백합, 1972, p.214.

택함을 받은 자의 구원에 관하여 루터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예정은 공고하고도 확실하고, 그 예정의 필연적 결과도 같이 불변이요, 반드시 생긴다. 그 까닭은 우리들 자신이 심히 연약하여 만일 구원이 우리들의 힘에 맡겨진다면 거의 아무도 아니 차라리 전연 아무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모두 악마에게 사로잡히겠기 때문이다.

궁극 은총의 교리는 신자가 한시라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결단코 아주 타락하는 일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극히 약한 그리스도인이더라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견인의 은혜를 그들의 마음에 역사시킴으로써 그의 궁극적 배교에서 확실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는 결코 타락의 최후 계단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하려 함이라”(고후 4:7).³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 자가당착의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전투태세에 있다. 그는 일시적으로는 넘어지고, 혹은 잠시는 전연 신앙을 잃은 것 같이 생각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한번 참으로 구원되었으면 은혜에서 완전히 떠나갈 수 없다.

- 성경적 근거 -

롬 8:35-39	롬 6:14	요 6:47	요 5:24
요 6:51	요 4:14	빌 1:6	시 138:8
롬 11:29	요일 5:11	요일 5:13	히 10:14
딤후 4:18	롬 8:29	엡 1:5	요 10:28-29
마 24:24	요 14:19	롬 8:10	갈 2:20
롬 8:10	엡 4:30	고후 2:14	렘 31:3
마 7:24	시 23	롬 8:34	히 7:25
요 11:42	렘 32:40	벧전 1:5	롬 14:4
살후 3:3	고후 4:8, 9:14		

34) 앞의 책, p.21p.

제5장 알미니안주의 5대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비교

1. (알)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칼) 전적무능 혹은 전적부패

(알) 비록 인간의 본성이 타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전적인 영적 무력의 상태에 처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며 믿게도 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신다. 모든 죄인들은 각각 자유의지를 가지는데 영원한 운명은 그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인간의 자유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악에 대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과 협동하여 중생이 되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멸망하든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기된 죄인은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성령에 의하여 반드시 중생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행위이며 중생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선물이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공헌이다.

(칼) 칼빈은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상태로 전락해 있다고 보았다.³⁵⁾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가 복음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죽은 상태며, 장님이며, 귀머거리다. 그의 마음은 속이는 것이 가득차 있으며 절망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의지가 자유하지 않으며 악과 본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대하여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실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이다.³⁶⁾ 결과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데는 영의 도움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성령이 죄인을 살게 하고 또 새로운 본성을 주는 증상을 요한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기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총

35) [기독교 강요], II.2.

36) 라보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서울: 성광문화사, p.21p.

이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에게 주는 은총이 아니다.

2. (알) 조건적 선택

(칼) 무조건적 선택

(알)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 또는 예지 예정(Conditional election or God's foreknowledge and predestination)을 믿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미리 예지하신대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할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예지(foreknowledge)란 말은 미래에 되어진 일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예지란 모든 것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되어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알미니우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지를 인정했다.

(칼)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뿐이다.³⁷⁾ 따라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선택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간과하심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다. 이 교리의 특정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 회개 등과 같은 이런 예지된 반동이나 그들 편에 대한 순종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각 개인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덕성이나 예지된 행위에 대해서 결정되거나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심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원인이다.

3. (알) 일반적 속죄

(칼) 제한적 속죄

(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을 가능케 했으나 실제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획득하신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리스

37)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20

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지만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조를 물리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할 때에만 유효하게 된다.

(칼) 칼빈은 영원한 작정, 혹은 영원한 계획을 말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른다.”³⁸⁾ 이것은 인간의 선택보다 선행하며 아담의 타락보다도 선행한다.³⁹⁾ 또한 그것은 천지창조보다도 선행한다.⁴⁰⁾ 그러한 이유로 칼빈은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예정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택한 자들만 구원하려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만이 구원을 획득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특정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하신 형벌에 대한 대속의 인내였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부가해서 자기와 그들을 연합하는 믿음을 포함하여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하였다. 믿음의 은총은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위해서 돌아가신 모든 자들에게 빠짐없이 적용되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구원을 성취시킨다.

4. (알) 성령은 거스러질 수 있다.

(칼) 불가항력적 은총

(알) 성령은 복음에의 초대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내적으로 부르신다. 성령은 구원으로 죄인들을 데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그가 자유하는 그만큼 성령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거스릴 수 있다. 성령은 조인이 믿을 때까지 그를 중생시킬 수 없다. 믿음(인간의 기여인)이 선행하여 중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한다. 성령은 그로 하여금 그들과

38) Inst., 3. 21. 5.

39) J.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op.cit., p.121.

40)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lated by T.H.L.Parker(Grand Rapids: Eerdmans,1965), Ephesians, 1:4절.

더불어 그의 길을 취하게 하는 자들만 그리스도에게 이끄실 수 있다. 죄인이 용하기 전에는 성령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하여 거스러지고 방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끔 그렇게 되었다.

(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구원을 위한 외적 소명에 부가해서 성령은 택자들을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한 내적 소명을 계속하신다. 외적 소명은 거부되어질 수 있으나 내적 변화는 개조된 생명의 원천인 천내(天來)의 능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것이며 영구적인 것이다. 중생은 영적 부활이며 신생(新生)이다. 영혼의 중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권유와 단순한 진리의 감화에 의하여 유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안에 행하여지는 어떠한 일이었지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행위는 아니다. 중생을 받는 영혼은 단순히 그저 피동적으로 성령의 공역(工役)에 응할 뿐이다. 중생은 성격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변화의 결과로 사람은 내적 경험에 의하여 불신앙 상태에서 궁극적 신앙 상태로 옮긴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 출생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탄생에 대하여도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전혀 주권적 사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의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신다. 이 일의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은밀한 뜻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⁴¹⁾이 내적 변화가 즉석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상의 중대한 효과는 의를 사랑하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뢰함이다.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성품이 죄에 속하였으나 중생의 내적 변화가 있는 이후부터는 성덕을 소유하게 된다. 이 주효적 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창조의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지 그 자체를 변화시켜 그 속에 기록한 성격을 형성시킨다. 이 은혜는 인간에게서 유죄한 사물의 기욕을 제거하고 그를 죄를 미워하게 만든다. 이 은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이 미쳐지는 사람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41)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의 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p.527.

5. (알)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칼) 성도의 견인

(알) 알미니안은 자유의지의 교리를 고수하는 동시에 참 신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아주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코 현세에서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단지 그는 그의 “현재적 구원”에 대한 보증을 가질 수 있다.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총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겸손히 함으로써 은혜에서 떨어져 결국에는 멸망 받을 수 있다.⁴²⁾

(칼)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셨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위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이 구원을 그가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심령에 계시해 나타내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방도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고로 만일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을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다고 하면 주께서는 또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견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얻는자의 보증이니, 곧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는 그리스도의 것들 안에서 경인하며 끝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여 끝까지 인내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끗케 하신자는 전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될 수는 없다 이런 자는 최후까지 확실히 보존되어 영원히 득구한다.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일은 있어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이 궁극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던 자가 궁극적 배신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의(義)의 외부적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 도르트 회의의 결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칼빈주의의 교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구원교리로 재확인되었다.)

42) Steele and Thomas,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pp.29~35.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고찰해 보았다. 칼빈이 주장한 구원론인 예정론의 그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인간 구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영원한 통치자, 보존자이시다.⁴³⁾ 이것은 신 중심적인 칼빈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확고히 유지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⁴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제한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정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이중 예정론(Double-Predestination)을 말한다. 성서를 근거로하여 구원 받을 자의 예정과 멸망 받을 자의 예정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며 영원하신 뜻이라고 생각한다.⁴⁵⁾ 그러나 이 교리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관심과 이해가 극히 불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 교리는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의 신경에 들어있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어거스틴, 위클리크, 루터, 칼빈과 쾰링클리로해서 근대에 와서 까지 많은 학자들에게 신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알미니우스주의가 이 교리를 승인치 않는다고 하여도 이 주의는 본래 다만 한 이단으로서 참 종교의 변두리에 있어서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오지 못하여 오던 것이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을 부인하고 자유의지에 치우쳐 기독교의 실존을 왜곡시킨 그릇된 신학 집단일 따름인 것이다. 자유의지의 교리를 고수하는 동시에 참신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아주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철저한 알미니안으로서는 그가 아무리 참신자라고 하더라도 현세에서 결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고아나 다름없이 불안의 나날을 보낼 것이다. 이성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엄연히 잘못된 사변이요, 신학일 따름이다. 그러나 칼빈주의 신학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첫째, 인간의 전적 부패 내지는 전적 무능력에 놓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조금도 나타낼 수 없는, 전적인

43) John Calvin, 김종흡 등 역, 기독교 강요 상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Vol. I -16장-1절.

44) 이후정, Calvin and Wesley on Predestination, 신학과 세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91.

45) John Calvin, Vol.Ⅲ-21장-7절.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인 것이다. 우리는 이 5대 교리의 신봉자인 동시에 이 교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실지로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칼빈주의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I. 성경

1.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1956.
2. 완벽큐티성경편찬위원회, 완벽큐티성경, 아가페문화사, 1990.

II. 사전

1. 한국어사전 편찬회편, 국어대사전, 서울: 교육도서, 1992.
2. 한영제,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3.

III. 단행본

1. 라보드, 칼빈주의의 신학과 사상, 성광문화사, 1981.
2. 벌콕 루이스,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3. 이성주, 알미니우스신학, 성지원, 1998.
4. 이종성,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4.
5.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9.
6. 이장식, 기독교사상사 제1권,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7.
7. 칼빈 J, 기독교강요 상권,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8. 칼빈 J, 기독교강요 중권,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9. 펠만 메이어, 기독교 교리의 이해, 이회숙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0. 한제호,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성,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1.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2. 헬름 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서종대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IV. 소논문

1.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1988.
2. 한철하, 칼빈에 있어서의 성화와 목회자의 거룩,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1990.

V. 학위논문

1. 김석노,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율법의역할에 대한 이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2. 김중교, 도르트회의 예정론 전쟁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1998.

3. 서승탁, 칼빈의 예정론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1995.
4. 안대원, 칼빈의 예정론으로 본 자유의지문제, 목회대학교 대학원, 1997.
5. 우경식, 칼빈주의 이중예정론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1.
6. 이훈구, 칼빈과 바르트의 예정론 비교, 장로회신학대학원, 1997.
7. 전외진, 속죄에 대한 제이론과 칼빈주의 속죄론, 대한신학대학 신학연구원, 1993